

투데이

이젠 쌀 공급 부족 사태 우려 올 공공비축쌀 40% 감소 전망

과다 방출로 작년말 151만t→10월 88만t으로 “정부 수요·공급 예측 분석 시스템 작동하나”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쌀 규모가 지난해 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수요·공급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만 9000t에 이르던 정부의 공공비축쌀 규모가 오는 10월말에는 88만t으로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적정비축량(72만t)보다 16만t 많은 물량이지만 2010년 양곡연도(2009년 11월~2010년 10월) 재고량에 견줘 약 63만t 줄어든 것으로 10개월만에 무려 41.7%나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오는 10월 쌀 재고량을 135만 7000t 규모로 예상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쌀 재고량 추정치가 48만t이나 줄어든 셈이다. 정부의 쌀 수요·공급 예측 및 분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쌀재고량은 지난 2002년(양곡연도)의 경우 144만7000t에 달했지만 대북 지원(2002~2007년)이 이뤄지면서 ▲2005년 83만2000t ▲2006년 83만t ▲2007년 69만5000t ▲2008년 68만6000t까지 줄어다가 대북 쌀 지원이 끊기면서 다시 증가, 2009년 99만3000t으로 늘었고 2010 양곡연도에 150만t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해 흉년이 들면서 쌀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비축미 방출에 적극 나섰고 결국 북한에 쌀을 지원하지 않고도 재

고량이 단기간에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문제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85만 5000ha로 작년보다 4.1%(3만6000ha) 감소한데다, 올해 ‘불량’벼씨 공급 등으로 인해 흉작마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자칫 쌀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10a당 생산량이 평년에는 500kg이었으나 지난해는 482kg에 불과해 쌀 생산량이 429만5000t에 그친 점에 주목, 올해도 작년처럼 10a당 482kg 정도 생산되면 재배면적 감소로 쌀 생산량은 41.2만1000t에 머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2010년산을 우선적으로 방출해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대부분 2009년산과 2008년산이라는 점에서 공급량이 모자라게 되면 소비자들의 ‘헐쌀’ 선호, 목은쌀 기피’경향 때문에 쌀값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불량 벼씨·중국어 애벌구·‘물폭탄’까지... 전남 농작물 관리 ‘비상’

전남지역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불량 벼씨로 작황 부진이 우려되고 중국에서 날아온 애벌구가 기승을 부려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물폭탄’으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고흥과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의 농경지 침수면적은 6998ha에 달한다.

고흥(3252ha)을 비롯해 순천(2169

ha)과 광양(520ha) 등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극심했고 순천·광양의 비닐하우스 45.9ha도 물에 잠겨 오이, 고추, 토마토, 수박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에는 발아되지 않는 불량벼씨 파동에 이어 최근 중국에서 날아온 애벌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작물이 침수됐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의 경우 최소한 잎끝이라도 노출 수 있도록 수시로 물을 빼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비가 그치면 잎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병해충 발생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침수된 벼에는 흰잎마름병과 도열병이 생기기 쉽다. 환작물도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흙이 슬러진 자리는 복토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

뉴스 브리핑

청소년 성범죄자 월 2회 우편고지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월 2차례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지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 등이다.

동반성장사업 내년 예산 늘린다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사업 예산을 늘린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15억원이었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예산을 27억원으로 80% 늘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100명중 7명 ‘이혼 가구주’... 100만명 넘어섰다

30년새 18배...330만명 이혼·사별후 재혼 안해

이혼으로 배우자 없이 사는 남녀 가구주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가구주 100명 중 7명꼴이었고 40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사별 상태인 가구주는 200만명을 넘으면서 이혼이나 사별 이후 재혼하지 않고 사는 가구주가 330만명에 육박했다.

11일 통계청의 2010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기준으로 이혼 상태인 가구주는 126만

7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0.2% (36만3000명) 늘었다. 이는 10년 전의 2.3배, 20년 전의 7.3배, 30년 전의 18.1배 수준이다.

이혼 상태인 가구주는 전체 가구주 1733만9000명의 7.3%를 차지했다. 1980~1985년에는 100명 중 1명꼴에 불과했지만 1990년 1.5%, 1995년 2.1%, 2000년 3.9%, 2005년 5.7% 등에 이어 100명 중 7명꼴로 불어난 것이다. 이혼이 크게 늘

어났기 때문이다.

이혼 상태인 가구주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72만1000명(56.9%)으로 54만6000명(43.1%)인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별 비중은 40대(40.3%), 50대(33.8%), 30대(12.2%), 60대(10.5%) 순이었다.

성별로 나뉘보면 남자는 40대(37.6%), 50대(37.1%), 60대(13.1%), 30대(9.0%) 순, 여자는 40대(42.3%), 50대(31.4%), 30대(14.6%), 60대(8.6%) 순이었다.

한편, 사별 상태인 가구주는 2005



년 183만2000명에서 작년 202만 1000명으로 10.3% 늘었다. /연합뉴스



차지사, 침수피해 신속 복구 당부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1일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를 방문, 박병중 고흥군수로부터 침수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박 지사는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응급복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1일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를 방문, 박병중 고흥군수로부터 침수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박 지사는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응급복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제공>

‘투잡’ 가입자 ‘2명’ 선정 국민연금 580억 미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투잡(Two Job)’ 가입자를 1명이 아닌 2명으로 집계하는 바람에 연금이 정상적인 것보다 적게 지급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미지급된 액수는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기존 관행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공단이 평균 소득 월액과 기본연금액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연금 580억원이 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단이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의 실재로는 1명의 개인인 만큼 가입자 수를 1명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2명으로 잘못 계산해 급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란 개인사업장 두 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두 곳 이상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를 일컫는다.

공단은 198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방 방식으로 총 40조원의 연금을 지급했는데, 감사원의 판단대로라면 이 때문에 그동안 적정액보다 적게 지급된 액수는 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공단의 방식을 고수하면 2050년에는 미지급액이 5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F1코리아 그랑프리 주관 방송사에 MBC

중계권료 수십억 불과 조직위 협상력 도마위

F1(포뮬러) 코리아 그랑프리 중계할 주관 방송사로 MBC가 선정됐다. 하지만 F1을 주관하는 FOM(Fomula One Management)에게 지불한 TV 중계권료(160억원) 인하를 위한 협상에서 실패한 상황에서, 국내 중계권료도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십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력 부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F1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재철 MBC 대표이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

호근 전남도의회 의장, 박원화 KAVO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관방송사 조인식을 가졌다. 계약 금액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FOM에 지불한 16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십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조인식을 통해 MBC는 올해 F1 대회 중계방송과 방송 홍보 등 주관방송 업무를 맡게 된다. 당장, 이달 22~24일 독일 니르부르크링 서킷에서 펼쳐지는 독일 그랑프리부터 시작으로 10개 잔여 대

회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남도와 F1 조직위는 이번 주관 방송사 선정에 계기로 F1 대회 개최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FOM에 16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중계권료를 지급한 뒤 뒤늦게 중계권료 인하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끝내 재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국내 방송사와는 수십억원 규모로 중계권료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KAVO 협상력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

경매투자

- 공동투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주)일화 기획생산 호남지사모집

당사는 (주)일화의 기획생산 공식지정업체로
향양, 향당노로 세계특허 10개획득한
신물질 발효인삼·홍삼을 취급할
호남지역 파트너를 구합니다

전원내츨러 F&D
www.fnd.or.kr
고객센터 0505-302-1111

주식회사 일화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1-77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코자 학교시설사업추진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7월 08일
광주광역시교육감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살레시오 수녀학원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80번지
- 사업의 명칭 및 규모

학교명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살레시오초	서구 매월동 산 69번지 외 1필지	살레시오초등학교 이설	12,466	9,940	2011.07.(사업확정일로부터) ~ 2012.10
- 공람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학교법인 살레시오수녀학원(살레시오초등학교 행정실)
- 공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산 69-1번지 일·14,881㎡중 11,624㎡ 토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525번지 중 9,989㎡중 842㎡ 토지

한자교육 <천자문과 한자성경으로 배우는 한자교육> 혁명

<아동 : 00명, 성인 00명을 3개월, 1년 과정 모델교실에 특별 초대함>

한자성경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한글은 3장 정도만 자유롭게 읽는 반면 읽습니다. 한자성경은 한자전문이 아니므로 기본 장 몇 장만 읽기 되면 한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은 한 글처럼 동시에 알게 되고 한자성경 사용교과에 1년 정도 출석만으로 4000여 자를 한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천자문으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처럼 알게 됩니다!

천자문은 고대 중국역사 문헌에서 삼국시대까지 40여명의 인물과 나라, 지명, 약어(존칭)와 옛날 일기교재로 배우게 되면(방문자 5분에 읽는 천자문 증명)단기간에 천자문을 누구든지 예전처럼 쉽게 배우고 한자를 한글처럼 아는 지름길입니다.

- 시범강좌 및 교육설명회
7월 21일(목요일) 오전10시
(준비관계로 사전 접수 요망)
- 찾아오시는길 : 광주 수원지구 성덕중학교 건너편 피리버게트 뒤편
에덴교회 ☎ 연락처 : 010-3911-3907 062-433-3907
- 강사 : 전제웅원장
(한자교육연구소원장, 10년간 한자교육방법연구 한자는 한글보다 쉽다 저자)

성경주문(가속 30,000원, 비닐20,000원, 찬송가합본 40,000원 택배비포함)성서공회발행
<교육신청서 구할 수 있으며 주문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 ☎ 010-2218-1255

한자교육(전도학교)연수원(시군구 지부 모집 중임)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정덕동 1086번지성덕중학교 건너편
☎ 062-433-3907
• 한자교육연수원 cafe.daum.net/jeodanglove
• 메일 : junhanja@hanmail.net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살펴제작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용)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자금용이사항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KBI시세-80%+a (60%)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보증금의-80% 금리: 연 3.93%~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